

김윤수 전남대총장 국립대 좌담회



김윤수 전남대학교 총장은 21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거점국립대학 총장 좌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김창경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을 비롯해 거점국립대학 총장 6명이 참석해 국립대학 선진화방안 추진현황 및 발전방안,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의 동반성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인촌 前 문광부장관 내일 강진서 강연



외화 번역가 이미도씨 24일 광주 강연



유인촌 前 문화관광부 장관이 오는 23일 오후 3시 강진군 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제229회 강진 다산강좌에 강사로 나서 '지역 문화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다.

곡성 출신 민요가수 이애자씨 음반 발표



곡성 출신의 민요가수 이애자씨가 최근 '사랑하는 어머니'란 제목의 음반을 발표했다. 이씨는 30년 동안 가수로 활동하면서 님타령, 백수인생 등의 곡을 발표하고, 삼주풀이, 배 띄워라, 새타령 등의 민요를 불러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인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지역본부 ▲광주본부장 김승영 ▲전북본부 전기처장 류영태 ▲전북본부 익산역장 김영복 ▲전북본부 익산기관차승무사업소장 김연수 ▲전북본부 익산열차승무사업소장 김승환 ▲전북본부 강종현 이경일 ▲광주본부 차량처장 한정동 ▲광주본부 안전환경처장 이영우 ▲광주본부 광주역장 김미란 ▲광주본부 김홍식 ▲전남본부 안전환경처장 김오영 ▲전남본부 이계종 홍준표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 전라기획팀장 김학춘

“전라도 음식 세계화 전도사 될래요”

순천대서 남도음식 수업 美 드렉셀대 조리학과 학생들

“미국에서 한식을 배울 때는 몰랐는데 한국에 와서 직접 먹어보니 전라도 음식맛이 훌륭하고 종류도 다양해 놀랐습니다.” 미국의 예비 요리사들이 지난 19일 오후 순천대에서 ‘전라도 음식’을 배웠다. 미국 드렉셀대학교(Drexel University) 이지원 교수와 조리전공 학생 16명 등 총 19명. 이들은 이날 전라도 음식의 백미인 대동밥과 매생이국, 낙지호롱구이, 꼬막숙회, 갯물감치, 고사리나물 등의 요리법을 익혔다.

미국에서 한식요리를 한화가 동안 배운 이들이지만 살아있는 낙지를 나무젓가락에 돌돌 말아 굽는 낙지호롱구이에는 집집을 했다. 이들은 실습을 마친 뒤 자신들이 만든 전라도 음식에 막걸리를 곁들여 저녁 식사를 했다. 실습에 참여한 제임스 밴코 씨는 “처음 와서 마셔본 막걸리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아마도 이 맛을 못 잊을 거다. 미국에 가져가고 싶다”고 말했다. 전라도 음식을 지도한 전순실 순천대 교

수는 “맛의 고장 전라도 음식에 대한 반응이 좋았다”며 “전라도 음식을 비롯한 한식 세계화를 위한 국제 음식문화 교류가 활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들 예비 요리사들은 aT(농수산물유통공사) 지원으로 지난 13일 한국을 방문해 한국음식 이론과 실습을 하고 있다. 오는 24일까지 2주간 김치담그기, 삼계탕, 불갈비, 찹쌀떡, 녹두반죽, 굴밥 등 요리법을 배우고 떠날 예정이다. 한편, aT는 한식 세계화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한식 전문인력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해 가을 미국 드렉셀대에 ‘한식의 이해와 한식조리 이론강좌(Intro to



미국 드렉셀대 조리전공 학생들이 지난 19일 순천대에서 낙지호롱구이 요리 실습을 하고 있다. <순천대 제공>

Korean cuisine), ‘한식실습강좌(Korean Cuisine)’ 정규과목을 개설했고, 3학점 과정의 한식신화교육과정(Advanced Korean Cuisine)도 운영 중이다. 이종경 aT 광주전남지사장은 “한식을 세계인의 식탁에 올리기 위해서는 현지 조

리사에게 조리법을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일본 하토리화원·미국 드렉셀대 등 세계적인 교육기관에 지속적으로 한식 강좌를 확대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결혼 앞두고도 日서 구조 활동

중앙119구조단 군산출신 이성훈 반장

일본 대지진 피해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119구조대원 중 결혼식을 목전에 두고도 의연하게 구조활동을 펼친 대원이 있다. 주인공은 중앙119구조단 소속 이성훈(30) 반장. 이씨는 26일 결혼식을 앞두고도 지난 14일 일본 센다이(仙台)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 반장은 “주위에서 한결같이 일 본행을 만류했으나 재해 현장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피해자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해의 구조 경험도 쌓을 겸 일본행을 자원했다”고 말했다. 이 반장을 비롯 107명의 대원들은 최대 피해 도시인 센다이시에 본부



를 차리고 구조활동을 펼쳐왔다. 이 반장은 “노보라 치는 텐트 안에 있으면 애인의 모습이 떠올랐다”며 “하지만 인명 구조 임무가 더 우선이라는 생각에 견뎌냈다”고 했다. 전북 군산이 고향인 그는 지난 2008년 소방관에 임용된 뒤 2009년

부터 중앙119구조단에서 활동하고 있다. 신부가 될 지장미씨는 건축회사에 다니는 재원이다. 구조활동이 길어지자 결혼식을 연기할 각오까지 하고 있던 이 반장은 주위 동료들의 도움으로 예정대로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동료들이 “결혼식을 올려야 하지 않겠느냐”며 결혼 계획을 상부에 알렸고, 구조대를 이끌고 있는 이동성 중앙119구조단장은 건의를 받아들여 그의 귀국을 명령했다. 이 반장은 “동료들을 위로 하고 먼저 귀국하게 돼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우체국은 시민들의 문화공간”

신임 정득수 광주우체국장



“광주우체국은 시민들의 공간입니다.” 최근 취임한 정득수(60) 광주우체국장은 “광주 1번지 우체국에서 근무할 수 있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총장도 광주우체국 영업을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현재 1, 2층으로 분리돼 서비스하고 있는 우편·금융 업무를 1층으로 통합 운영하고 여유 공간을 시민위한 문화공간으로 쓸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40여 년간 우체국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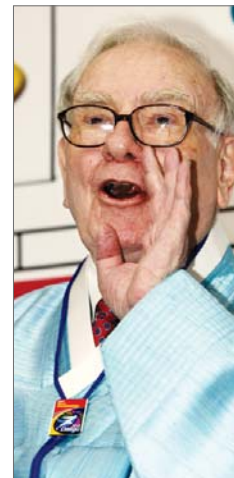
“한국 성장기업에 투자중”

대구 방문 워런 버핏

대구를 방문한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은 21일 “4년 전 한국을 찾았을 때 포스코를 비롯해 한국 내 몇 개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지금도 한국 기업에 여전히 투자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버핏은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투자한 대구혁의 제2공장 기공식에 참석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투자를 할 때는 업종을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10년 후 모습에 대한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한다”며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1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은 3-4개 정도인데 포스코는 그 중 1곳”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포스코를 제외하고 다른 기업은 시가총액이 얼마 되지 않아 해당 기업의 명칭을 밝힐 경우 그 기업의 시가총액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

다”고 덧붙였다. 일본 대지진과 관련해서는 “만일 내가 일본 주식을 갖고 있다면 팔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은 미국이 9-11 테러 때 그랬듯 곧바로 반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버핏은 대구혁 측이 선물로 대북을 전달하자 입고 기자회견을 계속했다. <연합뉴스>



보성출신 작가 송기원씨 현대불교문학상



보성 출신 작가 송기원(64)씨가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현대불교문인협회와 계간 ‘불교문예’가 주관하는 제16회 현대불교문학상 소설 부문에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작은 ‘실천문학’ 2010 가을호에 실린 ‘노랑목’이다. 송씨는 1967년 광주일보 신춘문예에 시 ‘불면의 밤’에 당선되어 등단했으며 주로 깨달음과 구도의 길에 대한 작품을 발표했다. 동인문학상, 대산문학상, 김동리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상금은 100만 원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로덱스, 노인시설 어르신들에 수납장 120개



(주)로덱스(대표이사 정대식)는 지난 19일 노인전문요양시설 은빛마을(원장 진장현)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개인별 수납장 120개를 전달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kwangju.co.kr>

전남개발공사 ‘가족과 함께하는 신입 임용식’



전남개발공사는 21일 3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입사한 신입직원 6명의 가족들을 초청, ‘가족과 함께하는 신입 임용식’을 했다. <전남개발공사 제공>

광주전남건강관리협 임예방 캠페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본부장 조재현)는 광주 5개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등과 함께 21일 ‘세계 임예방의 날’을 맞아 종합버스터미널 앞에서 임 검진 기구 캠페인을 벌였다. <건강관리협회 제공>

생활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학측

▲홍경진·장신숙씨 장남 정표군 김옥(고은종합건설 부사장)·강매순씨 차녀 정민양=26일(토) 오전 11시 40분 웨딩전당 금호30층(아도니스홀) ▲김형봉·박소연씨 장남 경석군 송숙희씨 삼녀 박선영양=27일(일) 오전 11시 꿈의 궁전 웨딩홀 1층(에메랄드홀) ▲이용성(국회의원)·신영옥씨 장남 현철군 성기섭·김정희씨 장녀 미소양=27일(일) 오후 2시 30분 서울 GS타워(1 LG강남타워) 1층(아모리스홀) ▲이계수(광주대 교수)·남남숙씨 장남 상훈(광주은행) 정병훈·이순덕씨 장녀 나래(광주은행)양=27일(일) 낮 12시 20분 하우스웨딩스

동창·동문회

▲학교법인 유은학원(광주상고·광주여상·동성고·동성중·동성여중) 총동문회 광주 서구지회(회장 강창규) 남·동구지회(회장 박영길) 합동 월례회=25일(금) 오후 7시 포두갈비(상부지구 운전사거리 무진교회·무각사 입구) 062-371-9592. ▲문화류씨 하정공파 광주·전남 중친회(회장 류수택)=29일(화) 오후 6시 30분 오리명가. 062-652-5294. ▲재광 순창 향우회(회장 김진곤)=29일(화) 오후 7시 흥백식당(대인동) 062-228-3382. ▲함평노씨 한림공 중친회(회장

노병철 정기총회=25일(금) 오전 11시 제일오피스텔 16층(동구 수기동) 함평노씨대중회 사무실. 018-627-0333. ▲제40차 김영길씨 광주·전남 중친회 정기총회=26일(토) 오전 11시 갤러리아웨딩홀 1층. 010-7725-9000. ▲홍덕(홍성)장씨 광주·전남 중친회=27일(일) 오전 10시 30분 광주 회고 강당. 062-523-1519, 010-5522-9700. ▲문화류씨 하정공파 광주·전남 중친회(회장 류수택)=29일(화) 오후 6시 30분 오리명가. 062-652-5294.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모집

▲어린이재단 전남가정위탁 지원 센터 위탁 아동·부모=친부모의 사망·가출 등으로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한 위탁 아동과 봉사 차원에서 아동을 양육해 줄 위탁부모 모집. 061-279-1225~6. ▲중환자요양모임 회원=민요를 사랑하며 사회 봉사애 뜻이 있는 45세 이상 남녀. 019-601-6989. ▲100원회 회원=1일 100원으로 부담없이 이웃 사랑 실천하실 분. 011-666-0660. ▲사랑의 교실 중·고등학교 과정 교사, 수강생=국어·영어·수학·사회과목 무료 봉사자. 월~금요일 오후 7시~10시30분. 062-223-8529, 016-223-9541.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부음

▲남기창(전 서울신문 기자)씨 별세 오준·지우씨 부친상=발인 23일(수) 전남 장흥군 중앙장례식장 1호실. 061-863-4444. ▲서병열씨 별세 재종·재준·재철·성금씨 부친상=발인 23일(수)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오세일씨 별세 광석·형석·창현·효순·령자·동운씨 부친상=발인 23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 062-231-8905. ▲임형남씨 별세 기원·옥경·옥엽·채경·맹남·미경씨 부친상=발인 23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하암씨 별세 이창균(전 곡성석곡고 교감)·성균(사업)·인균(사업)·택균(사업)씨 모친상 김동철(사업)씨 빙모상=발인 23일(수) 성요한 병원 장례식장 2층. ▲손상용씨 별세 만수·효성·기빈씨 부친상=발인 22일(화) 무등장례식장 201호. 062-515-4488.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故 金 浩 宗 禮 式 堂 http://www.mykumho.com

謹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故人 趙 龍 慶 禮 式 堂 24시간 대기 (062)250-4455